선교사에게 계속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도수 선교사
브라질 선교사 (바울선교회 소속 선교사: 35년)
필리핀 선교사(구), 바울선교회 본부장 역임
한인세계선교사회(KWMF)사무총장 및 대표회장 역임

지난 어느 날 한국에서 선교단체들이 모여 선교전략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전략 가운데 미전도 종족 입양에 대하여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두 진지하게 미전도 종족 입양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선교사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 말하기를 "선교지에서 전도를 해야지 무슨 사람을 입양을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교사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력회의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온 말이 "또 하나의 미전도 종족이 선교사다"라고 하였습니다.

선교사가 80년도에 선교지로 나갔으면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8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90년도에 나갔다면 20년이 지났어도 9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선교사가 낙후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 자기계발(self development)을 못하고 있기에 선교사의 수준이 선교사로 출발 할 때의 수준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현지 선교 환경과 선교 전략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데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변하지 않고 파송 받을 때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현지 언어와 문화 적응은 상승해 가는 반면, 지식과 정보는 정지 상태거나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사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교사의 계속교육이 필요함을 깨달은 몇몇 파송단체들은 선교사들에게 단기 코스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선교사 계속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보다 전문적인 자기 계발을 하기 위해서는 학위 코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온라인이 발달하여 학교에 가지 않고도 선교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선교사 계속교육을 위하여 온라인 시스템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계속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수업료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비가 많이 줄어 스스로 학비를 내어 교육받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선교사들에게 장학혜택을 제공한다면 교육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월드미션대학교에 선교사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다면 많은 선교사들이 계속교육을 받아 능력 있게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를 위한 장학금후원을 통하여 하나님나라 확장에 직접 동참하는 것이라 믿습니다.